



특집 08

폐쇄형 SNS에서 소셜 큐레이션에 기반한 지식 관리 시스템: KHUB

김원중(케이테크), 양재동(전북대학교), 임종태(공주대학교)

목 차 »	1. 서론
	2. KHUB
	3. 결론

1. 서론

사용자가 정보를 얻는 방식이 최근 급격히 변하고 있다. 상당수의 사용자들은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이제는 종래와 같이 검색 창을 두드리는 대신 SNS 상에서 누군가에게 직접 물어봐서 알기를 원하고 있다. 실제 최근 스마트 폰 사용자들의 보편화는 이러한 요구에 실시간으로 부응하는 여건을 만들어 내고 있다^[1].

그러나, 대표적인 SNS인, 페이스북, 트위터 그리고 카카오톡 등은 이처럼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지식 유통의 장이라기 보다는 열린 온라인 상에서 지인들 간 친분을 도모 한다든지, 각자의 여러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전파하기 위한 용도로 주로 사용된다. 또한 개인의 사생활이나 민감한 정보들이 여과 없이 노출되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런 열린 SNS 의 한계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의 유통은 특정 분야에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간 의사 소통이 일어나는 폐쇄형 SNS^[2,3]에서 주로 이루어 지고 있다.

한편, 2010년 3월 서비스 개시 2년 만에 미국 내 방문자 순위에서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이어 3위를 기록할 정도로 급속히 사용자 그룹을 확장하고 있는 Pinterest (www.pinterest.com)를 필두로 국내외 적으로 소셜 큐레이션 (social curation)^[4]을 표방하는 많은 서비스들이 출현되었다. 소셜 큐레이션이란 자신과 관심사가 일치하는, 즉 자신의 아바타와 같은 SNS 사용자 그룹들이 가공 정리한 정보나 지식들 중 좋은 평가를 받은 것들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방식을 이르는 용어이다. 소셜 큐레이션 방식으로 정보나 지식을 유통하는 대표적인 서비스 사이트들로 국외에서는 소셜 경험을 공유하는 ‘스토리파이(www.storify.com)’, 놀라운 물품 정보를 공유하는 ‘더펜시(www.thefancy.com)’ 그리고 전문정보 공유 사이트인 ‘스coop잇 (www.scoop.it)’ 등을 들 수 있고, 국내에서는 핀터레스트와 유사한 ‘인터레스트미(www.interest.me)’, 무료음악 큐레이션 서비스인 ‘뮤직톡(music.talk.co.kr)’, 큐레이션 커머스 사이트인 ‘블링클 (blinck.com)’ 그리고 키워드 기반 소셜 큐레이션

서비스인 '트윗몹(<http://tweetmob.some.co.kr>)' 등이 있다.

본 기고에서는 전문 분야의 폐쇄형 SNS 상에서 관심을 공유하는 연구원들이 그룹단위로 정보나 지식을 소셜 큐레이션 방식으로 공유하고 상호 유통시킬 수 있는 웹 솔루션인 KHUB^[5]를 소개한다. KHUB의 폐쇄형 SNS 기능은 다양한 분야의 R&D 연구를 수행할 때 연구원들간 또는 공동 연구 기관 들간의 의사 소통을 그룹 단위로 원활하게 지원하고, 소셜 큐레이션 방식의 지식 서비스는 기존의 방식들과 비교할 때 R&D 연구 수행에 필수적인 정보와 지식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2. 소셜 큐레이션 방식의 지식 서비스 시스템: KHUB

KHUB는 크게 연구원들이 그룹 단위로 수평적 상호 의사 소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그룹 SNS 인 K-라운지와 메타 검색을 통하여 해당 전문 분야의 국내외 사이트들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 자동 수집하는 지식 포털 구축 지원 솔루션인 K-스프링으로 구성된다. 다음 두 절에서는 K-라운지와 K-스프링의 다양한 기능들 중에서 주로 소셜 큐레이션 기반으로 서비스되는 기능들을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한다. (그림 1)은 K-HUB의 첫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2.1 소셜 큐레이션을 위한 그룹 중심의 폐쇄형 SNS : K-라운지

(그림 2)는 클라우드 컴퓨팅 그룹에 속해있는 연구원들이 열린 공간에서 상호 의사 교환을 수행하는 공간이다.

여기에서의 대화 내용은 모두에게 공개되는데,



(그림 1) KHUB 첫 화면



(그림 2) 그룹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오픈된 의사소통 공간

만약 특정 연구원의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글을 담벼락에 남기고 싶다면 아래 연구원 사진을 클릭한 뒤 (그림 3)과 같이 담벼락에 글을 올리면 된다.

(그림 3)에서 담벼락에 올린 글은 다른 그룹원에는 공개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채팅을 통하여거나 문자를 보내 글을 남길 수도 있다. 즉, 게시



(그림 3) 홈 방문한 그룹원 담벼락에 글쓰기(사적 대화 & 이메일 자동 발송)

판과는 달리 SNS의 용이한 접근성에 의해 의사 교환이 수평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그림 4)는 해당 그룹의 각 연구원들이 공개하는 자료로 본인이 카테고리 별로 잘 분류, 정리한 문서 집합, 다시 말하면 큐레이션한 정보들을 전체 공개한 자료, 그룹공개한 자료 별로 다른 연구원들에게 공개하는 화면이다.

공개되는 자료는 이외에도 (그림 5)와 같이 국내의 전문 사이트들로부터 키워드별로 자동 수집된 콘텐츠를 큐레이션한 논문, 동영상, 학술 자료 그리고 특허등도 포함된다.

한편 그룹별로 그룹원들이 큐레이션한 정보들



(그림 4) SNS 홈페이지 상에서 MY지식링크로 팀원들에게 공유되는 나의 지식



(그림 5) 웹크롤링과 키워드 필터링에 의한 DB 자동 축적

은 (그림 6)과 같이 그룹 북마크 또는 그룹자료에 저장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들은 민감한 자료들이기 때문에 타 그룹에서는 접근할 수 없으며, 필요시 IP 별로 그룹 관리자가 제어함으로써 전체 관리자조차도 자료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수도 있다.



(그림 6) 그룹 SNS 상에서 그룹 자료가 공유 (공개북마크)

2.2 전문 분야 지식 관리를 위한 지식 포털 : K-스프링

K-스프링에서는 국내의 전문분야 사이트들로부터 메타 검색을 통해 얻은 자료들을 일괄적으로 북마크하고 스크랩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림 7은 이러한 메타 검색 기능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 7) 메타 검색을 이용한 열린 검색

며, 여기서 큐레이션은 키워드 별로 전문가들이 검색된 자료들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료들을 추천함으로써 이루어 진다.

마지막으로 메타검색 결과를 큐레이션한 자료, 또는 카페 등에서 전문가들이 의견을 피력한 내용들은 그림 8과 같이 K-라운지상에서 그룹원들에게 공유됨으로써 온라인 상에서의 회의나 토론에 활용될 수 있다.



(그림 8) 카페 공유 지식 KHUB 연동

3. 결론

지금까지 폐쇄형 SNS 기반의 지식 서비스 시스템인 KHUB에서 소셜 큐레이션 방식의 지식 공유 기능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소셜 큐레이션은 전문 분야 연구의 지적 산물을 관심 분야가

같은 연구원들간 효율적으로 공유시키고 협업을 통해 콘텐츠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으며, 큐레이션된 콘텐츠를 상호 검증해줌으로써 εμπ선된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최상의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의사 소통을 통한 협업이 과제 성공의 관건이 되는 R&D 연구 분야에서 소셜 큐레이션은 지식 관리 패러다임의 대세이기 때문에 KHUB를 통한 전문 분야 지식 서비스는 향후 보편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 문헌

- [1] SocialBakers, World Continents Facebook Statistics, <http://www.socialbakers.com/countries/continents>, 2011.
- [2] 강희경, 사생활 노출 피곤해 폐쇄형 SNS 가 뜬다,” 한국일보, 09. 09, 2013.
- [3] 박경호, “인간관계 스트레스에 폐쇄형 SNS 속속등장,” KBS 뉴스 광장, <http://www.youtube.com>, 2013
- [4] 장지환, IT 비즈니스 핫트렌드 소셜 큐레이션 서비스 분류 및 분석, 트렌드와칭 34호, <http://trendw.kr/business/marketing/201205/1132.t1m>, 2012.
- [5] KHUB 데모 사이트, “<http://www.khub.kr>.”

저 자 약 력

김 원 중

이메일 : wjkim010@gmail.com

- 1999년 전북대학교 전자계산학과(학사)
- 2001년 전북대학교 전산통계학과(석사)
- 2008년 전북대학교 컴퓨터통계정보학과(박사)
- 2002년-2009년 전북대학교 시간강사
- 2009년-2013년 전북대학교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겸
임교수
- 2001년-현재 (주)케이테크 기술이사
- 관심분야: 정보검색, 온톨로지, 시맨틱 웹

양 재 동

이메일 : jdyang2000@naver.com

- 1983년 서울대학교 전자계산기공학과(학사)
- 1985년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과(석사)
- 1991년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과(박사)
- 1999년-현재 전북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 1999년-현재 (주)케이테크 창업 / 대표이사
- 2007년-현재 조달청 물품목록정보자문위원
- 관심분야: 정보검색, OODBs, Expert System, CASE,
온톨로지, 시맨틱 웹